

전주시 '아시아 문화심장터' 구체화

시정 100대 핵심과제 선정... 아시아 top 문화도시 도약 등 4대 전략중심 132개 과제 포함

전주시가 핵심정책인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 주요사업들이 포함된 시정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전주 구도심 100만 평(약 330만㎡)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게 재생해 아시아의 문화심장터로 키워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아시아 문화심장터'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시정운영방향인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2017년 시정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

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해마다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쟁점사업이나 사업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을 100대 핵심과제로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시아 top 문화도시 도약 △전주형 시민의 경제 구축 △사람중심 복지정책 확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32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시는 올해 100대과제에 아시아의 문화심장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동학농민혁명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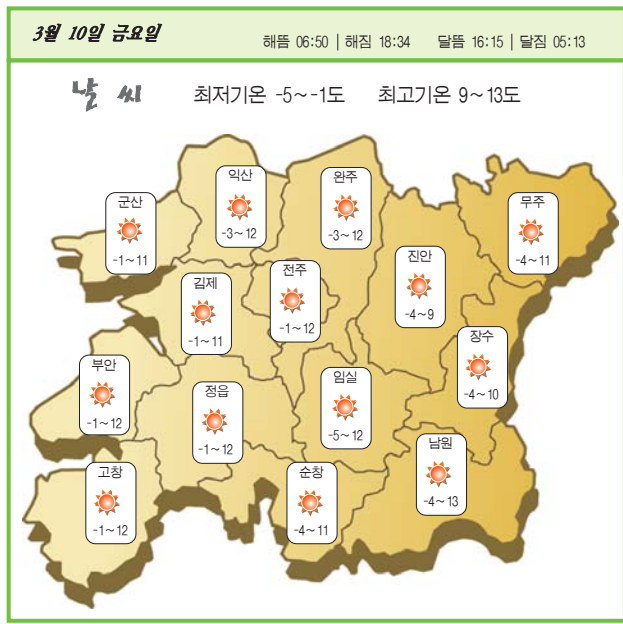
사문화벨트 조성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전주 업사이클센터 건립 등 18개의 과제를 포함시켜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아시아 top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전주 핸드메이드 시티 조성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강화 △국제예술시티 전주 브랜드 세계화 △한복문화 선도도시 기반 구축 △전주정신 '한국의 꽃' 전주 확산 등 총 42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는 또 전주형 시민의 경제 구축을 위한 32개 과제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경제를 키우고, 전주의 미래먹거리를 위한 5

대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테이블웨어 클러스터 조성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드론산업 전주 발상지 조성 △대학로 활성화 추진 △청년과 소통을 통한 지원 및 정책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강화 등도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형 동네복지 확대운영 △재난대비 안전도시 조성 △전주형 주거복지 사업 △금융복지 상담소 운영 내실화 △테마가 있는 아이슈 놀이터 조성 등 20개 과제를 선정, 사람중심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전북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운영

전북도교육청은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17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직장인, 생업종사자 학부모,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자녀교육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을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 일정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업체 및 단체,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유치원 예비학부모 등이 신청 대상이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 및 단체 등은 이달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stellar07@jedu.kr) 또는 팩스(063-220-9442)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과 지역아동센터 학부모교육 및 유치원 예비학부모교육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인성지도, 부모역할, 진로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밥상머리교육, 대화법, 독서교육, 감성코칭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0개 기관 1,19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운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은 맞벌이 가정, 직장인 학부모 등 모든 학부모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정해은 기자



"시내권 인접 농지에 축사 신축 반대" 익산시 동산동 주민들이 9일 익산시청 앞에서 시내권과 인접한 농지에 축사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우우수 기관' 선정 목표

도교육청, 올해 부패방지·청렴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도

전북도교육청이 2017년도 부패방지·청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목표를 청렴도 최상위권 지속 유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우우수 기관 선정으로 정했다.

세부 중점 추진 방향은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 정책 투명성 제고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개선,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유발요인 제거,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로 정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부패방지 청렴정책 72개 과제를 선정 운영하며 이를 계속과제 40개와 신규 과제 11개, 개선과제 21개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신규과제는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 학습동아리 예산 집행, 어울림학교 예산 집행 등의 투명성 강화와 사립학교 교육시설 사업 집행지침 작성 배포, 사립학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사립학교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중임교장, 교감 성과평가 청렴도 평가 반영, 교육전문직 전행방법 개선,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어린이통학 전세버스 임차용역 원가 표준안 제시, 청렴클러스터 구축 및 추진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전국 2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해은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심리상담기관 공모

도교육청, 15일까지 접수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학교 적응을 위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을 공모하기로 하고 이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심리상담 및 관련 검사가 가능한 기관들로부터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서류 평가, 기관 실사를 거쳐 최종 심의에서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3개월이다.

신청서는 도교육청 8층 인성건강과 학생생활교육담당에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전문가 자격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 설립한 기관 △상주하는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기관 △개인(집단) 상담실, 모래, 놀이, 미술 치료실 등 다양한 상담 시설을 갖춘 기관 △사업 목적에 합당한 실적이 있는 기관 △기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 등이다.

지원 절차는 피해학생 측이 지정기관에서 소요된 비용을 선 결제하고 학교안전공제회에 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 주고 싶어"

정우화인 김유석 대표, 원광대 장학금 2500만원 기탁

정우화인(주) 김유석 대표가 원광대 장학금으로 2,500만원을 기탁했다.

최근 총장실을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한 김유석 대표는 "지역인재 육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는데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고 기금전달 취지를 밝혔다.

또한, "원광대가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중 총장은 "성원이 대학 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며, "장학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우화인(주)는 정밀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1995년 설립됐으며, 글로벌 환경기술개발사업,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및 특허등록을 통해 지역 대표 중소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